



한국에 R&D센터 설립 검토

SAP 회장 헨닝 카거만

“한 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SAP의 수장 헨닝 카거만 회장이 지난달 12일 방한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SAP는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노력해 왔으며, 향후 10년은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카거만 회장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SAP코리

아는 그동안 고객사와 파트너사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올해를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10년사를 재조명하는 한 해로 보고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 내에 한국에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보다 많이 생길 수 있게 한국 정부와도 긴밀한 대화를 가져가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유연성 확보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거만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IT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실현해 일류기업 대열에 오른 좋은 예라고 전했다. 그는 또 환율 및 유가 등 외부 경영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카거만 회장은 “환율 및 유가 등 외부 경영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거만 회장은 공식 기자회견 이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오찬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카거만 회장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청했고 카거만 회장은 “한국은 SAP에게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R&D 센터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카거만 회장은 “이번 면담은 정통부의 외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 SAP코리아는 지난 1995년 11월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국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컨설팅, 정보기술 회사 및 국내 우수 정보기술 회사를 파트너로 맺고 있고 4대 그룹을 비롯한 국내 우량 기업을 고객으로 기업 혁신에도 많은 기여를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데 미력한 힘이거나 보탬이 있다면 영광이겠다”고 말했다.

헨닝 카거만 SAP 회장은 “SAP는 세계 최고의 솔루션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객과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되는 것을 그 비전으로 하고 있다”며 “고객 만족을 위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팀워크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SAP의 미션인 고객 비즈니스의 성공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